(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84-103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8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아가 1:5-6상반에 대한 번역 제언

김정헌*

1. 들어가는 말

20세기 후반 흑인 인권의 신장과 함께 아가 1:5상반에 대한 해석과 번역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아가 1:5상반의 "검으나(שחורה)"라는 형용사는 화자 여인이 흑인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속사 ו를 '그러나(but)'로 번역하면 흑인의 피부색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본고는 정말로 아가 1:5상반에 인종차별적 요소나 피부색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가 1:5-6상반에 대한 바람직한 번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아가 1:5-6에 대한 주석을 통해,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한 현재 학계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가 1:5상반에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하얀 피부색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지 성서 내적, 성서 외적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상반절의 שחור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6상반절의 שחרחרת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아가 1:5-6상반에 대한 유기적이고 적절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구약학 박사과정. daniel1977@naver.com.

2. 아가 1:5상반의 번역 논쟁

2.1. 아가 1:5-6의 주석

아가 1:5-6상반의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먼저 문맥과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5절과 6절을 같은 의미 단락으로 본다. 5상반절에서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שחר) 아름다우니"라고 말한다. *HALOT*은 형용사 שחר를 "검은, 혹은 석탄처럼 검은(black, or alternatively coal-black)"으로 정의하며, 아가 1:5에서는 사람의 얼굴 색깔과 관련하여 "거무스름하거나 햇볕에 그을린(swarthy, or alternatively sun-tanned)"의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1] '검은'과 '아름다운'의 두 형용사는 접속사 ו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ו가 '그리고(and)'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러나(but)'를 의미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5하반절에서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한다. 일반적으로 '게달'은 북아라비아의 한 부족 이름으로써(창 25:13; 사 42:11; 60:7; 렘 49:28; 겔 27:71 등), '어둡다'는 의미의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이라는 이름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왕의 화려함을 암시한다.[2] 그러나 그 외 솔로몬의 휘장에 대해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여인의 검지만 아름다운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논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모두 어두운 색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3] 둘 다 어두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이미지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4] 그러나 많은 학자는 게달의 장막은 어두움을 상징하고,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5] 이렇게 해석했을 때, 5상반절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

1) *HALOT*, 1466.

2) J. C. Exum, *Song of Song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org. ed. 2005), 104

3) 트램퍼 롱맨 3세, 『아가』, 권대영 역, NICO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원출판년 2001), 123-24; 로버트 W. 젠슨, 『아가』, 김회권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원출판년 2005), 65.

4) J. C. Exum, *Song of Songs*, 104-105;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91-92; N. C. Lee, *Song of songs & Lamentation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24), 32.

5)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박요한 영식 역, 지혜문학총서 (서울: 성바오로, 2002), 43;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 『아가, 예레미야애가』, 최천석 역, WBC 성경주석 (서

니”와 5하반절의 “검은 게달의 장막과 화려한 솔로몬의 휘장”이 평행을 이루어, 더 좋은 시적 구조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절에서 여인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שחרחרת) 흘겨보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피부가 거무스름해진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포도원을 지키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한다. 여기서 만약 “나의 포도원”이 말 그대로 실제 포도원이라면, 여자의 마지막 진술은 여자가 햇볕에 탄 피부에 대한 변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녀가 형제들이 말한 포도원을 지키느라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다면, 형제들이 화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6] 그러므로 “나의 포도원”은 여자와 관련된 무언가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나의 포도원”을 여자의 순결과 연관시키는 학자들이 있다.[7] 포도원은 종종 여성의 성(性)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나타나므로, 여자는 남자와 성관계함으로써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나의 포도원”을 단순히 여자의 외모, 개인적 필요, 자아 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8] 그녀는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자기 외모나 필요, 자아 성찰 등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둘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포도원이 여성의 성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르면 여자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는커녕, 피부가 햇볕에 탈 정도로 포도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자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한탄한 것은 6상반절의 “거무스름할지라도(שחרחרת)”가 그녀의 피부색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 솔로몬, 2010; 원출판년 2004), 203; Y. Zakovitch, *Das Hohelied*,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118;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김선종 역, 베이커 지혜문헌 주석 시리즈 (서울: CLC, 2020; 원출판년 2005), 90-92; M. Fishbane, *Song of Songs*,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5), 34; W. G. E. Watson, *Song of Songs*, HCOT (Kampen: Peeters Publishers, 2024), 260-261; A. Berlin,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5), 44.

6) Y. Zakovitch, *Das Hohelied*, 120. 더불어 로버트 W. 젠슨은 고대 중동 여인들은 부모의 집에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소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로버트 W. 젠슨, 『아가』, 65를 참조하라.

7) Y. Zakovitch, *Das Hohelied*, 120; 로버트 W. 젠슨, 『아가』, 65; N. C. Lee, *Song of songs & Lamentations*, 35-36; W. G. E. Watson, *Song of Songs*, 264.

8) 트램퍼 롱맨 3세, 『아가』, 125-26;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44-45;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 『아가, 예레미야애가』, 206;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95-96; M. Fishbane, *Song of Songs*, 36;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93; A. Berlin, *Song of Songs*, 47.

2.2. 흑인 인권의 신장과 아가 1:5상반의 번역

아가 1:5상반의 "검으나(שחר)"와 관련하여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 전통은 여인의 '검은' 피부를 죄의 은유로 묘사하였다. 또한 햇볕 아래서 일해야만 했던 여인의 사회적 계급이 낮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암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서구사회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노예화의 역사는 여인을 흑인으로 보는 해석과 결합하여, 화자 여인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암묵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Black Power", "Black is beautiful"이라는 구호 등과 함께 흑인의 인권이 성장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아가 1:5상반의 번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9] 즉, ו를 "그러나(but)"로 번역하는 것은 흑인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ו를 흑인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그리고(and)"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해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20세기 후반 현대의 영어 성서 번역본 중에서 NRS, The Revised English Bible (REB, 1989) 이 최초로 ו를 "그리고(and)"로 번역하였다.[10] 우리나라의 최신 역본인 『새한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그리고"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11] 이처럼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대적 패러다임이 아가 1:5상반 번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 아가 1:5상반의 번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많은 학자가 5상반절을 번역할 때, 인종적 이슈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흑인의 인권을 고려하는 학자들은 5상반절을 '나는 검다. 그리고(and) 아름답다'로 번역할 것을 주장한다.[12] 포프(M. H. Pope)와 킬(O. Keel)은 흑인 여신을 이에 대한 논거로 제기하기도 한다.[13] 단, 엑섬(J. C. Exum)만은 '그리고'(and)라는 번역은 인종 문제와

9) A. O. Bellis, "I Am Burnt but Beautiful: Translating Song 1:5a", *JBL* 140:1 (2021), 91-94.

10) Ibid., 94, 99.

11) 이영미,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아가·이사야 —", 「성경원문연구」 56 (2025), 195-196.

12) M. H. Pope, *Song of Songs*, AB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5; org. ed. 1977), 307-318; M. Falk, *Love Lyrics From The Bible: A Translation And Literary Study of The Song of Songs*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2), 110; O. Keel, *The Song of Songs*, CC (Minneapolis: Fortress, 1994), 47-49; A. Bloch and C. Bloch, *Th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Random House, 1995), 47, 140; J. C. Exum, *Song of Songs*, 102-104; N. C. Lee, *Song of Songs & Lamentations*, 31-35; W. G. E. Watson, *Song of Songs*, 260-261.

13) M. H. Pope, *Song of Songs*, 311-318; O. Keel, *The Song of Songs*, 47-49.

관련이 없으며, 여인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14]

반면에 기존의 해석 전통을 따라 '나는 검다. 그러나(but) 아름답다'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15] 이 학자들은 여인이 검다(שחר)고 말한 것은 인종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6절에 나와 있듯이 여인은 단지 햇볕에 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으로 보아 당시 문화에는 어둡게 그을리거나 탄 것을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추론한다.[16] 또한 일단의 학자들은 접속사 ו를 '그리고(and)'로 번역하는 것은 인종차별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17] 특히 벨리스(A. O. Bellis)는 본인이 백인 여성으로써 흑인 신학교에서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종차별적 언어와 싸워오고 있지만, 아가 1:5상반은 이런 싸움이 벌어져야 할 전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8] 이처럼 현재 아가 1:5상반의 번역은 인종적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아가 1:5상반의 의미 해석

그렇다면 아가 1:5상반에는 정말 인종적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종, 피부색과 관련된 성서 본문과 관련 문헌들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아가 1:5상반은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가?

아가 1:5-6의 여인이 '구스인'이라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성서에서 구스인은 일반적으로 '흑인'으로 알려져 있고(칠십인역에서는 에티오피아인으로 번역함), 주석가들 역시 구스인을 '흑인'으로 인종화하여 이해하고 있다.[19] 그러므로 성서에 나타난 구스인에 대한 평가는 인종차별 주제와 관

14) J. C. Exum, *Song of Songs*, 102-104.

15) 트램퍼 롱맨 3세, 『아가』, 122-26;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43-47;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 『아가, 예레미야애가』, 202-206; Y. Zakovitch, *Das Hohelied*, 116-20; 로버트 W. 젠슨, 『아가』, 3-65;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89-97; M. Fishbane, *Song of Songs*, 34-36;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89-93; A. O. Bellis, "I Am Burnt but Beautiful: Translating Song 1:5a", 110-111; 오민수, 『주해에서 설교까지 살펴보는 솔로몬의 사랑시. 아가서: 지고, 지선, 지미』 (고양: 이름북하우스, 2021), 50-53; A. Berlin, *Song of Songs*, 41-46.

16) 트램퍼 롱맨 3세, 『아가』, 123;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 『아가, 예레미야애가』, 202.

17) 트램퍼 롱맨 3세, 『아가』, 123;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90.

18) A. O. Bellis, "I Am Burnt but Beautiful: Translating Song 1:5a", 92.

19) R. S. Sadler, Jr., "Can A Cushite Change His Skin? Cushites, "Racial Othering," and the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구스, 구스인(כּוּשׁ, כּוּשִׁי)은 50회 이상 등장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전사(대상 1:10; 렘 46:9; 겔 38:5), 부유한 사람들(욥 28:19; 시 68:31; 72:10; 사 19:23; 45:14; 단 11:43), 잘생긴 사람들(렘 13:23)로 묘사된다. 즉, 이들은 구약성서의 사회적 위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인, 아모리인, 모압인 등 이방인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구약성서에서 이례적이며, 구스인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반영하는 것이다.[20]

새들러(R. S. Sadler, Jr.)는 유대인들이 구스인들과 빈번하게 접촉했지만, 구스인들을 인종적으로 자신들과 구별되는 실체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창세기 9-10장(함의 자손들), 민수기 12장(모세의 구스 여인 논쟁), 예레미야 13:23의 수사학적 질문,[21] 그 외에 구약성서에서 구스인이 언급되는 사례들(렘 38-39; 왕하 19:7; 렘 36:14; 습 1:1)을 검토함으로써, 구약성서는 인종주의적 사고를 지지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의미의 '인종'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22]

또한, 리(N. C. Lee)는 "인종(race)"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백인 우월주의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녀는 현대 학자들이 후대 역사나 오늘날 나타나는 피부색 기반의 인종차별적 개념이나 사고를 히브리 성서(아가 본문을 포함하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23] 그녀가 예로 제시하는 비어노트(D. Biernot), 아우슬로스(H. Ausloos)는 당시 그리스-로마 시대에 소위 '원형적 인종차별'(proto-racism)의 사례가 발견되고 당시 독자들에게는 인종적 편견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아가 본문에서는 인종적 차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24]

Hebrew Bible", *Interpreatation* 60:4 (2006), 389-390.

20) A. O. Bellis, "I Am Burnt but Beautiful: Translating Song 1:5a", 94-96.

21)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22) R. S. Sadler, Jr., "Can A Cushite Change His Skin? Cushites, "Racial Othering," and the Hebrew Bible", 401-403.

23) N. C. Lee, *Song of Songs & Lamentations*, 34.

24) H. Ausloos, "Between Exegetically Appropriate and Politically Correct: Towards a Responsible Interpretation of Song of Songs 1.5-7", S. Fischer and G. Fernandes, eds., *The Song of Songs Afresh: Perspectives on a Biblical Love Poem*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9), 3-14; D. Biernot, "'Black I am and Comely': Blackness and Whiteness as Part of Jewish Racial Discourses from Modern Times to Antiquity ― And Where Is the Place of the Song of Songs in All This?", S. Fischer and G. Fernandes, eds., *The Song of Songs Afresh: Perspectives on a Biblical Love Poem*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9), 15-43; N. C. Lee, *Song of Songs & Lamentations*, 34에서 재인용.

이상의 연구들은 구약성서에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종"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유대인은 흑인이었던 '구스인'을 존경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가 1:5상반의 "검으나(שחר)"에는 유색 인종 차별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2. 아가 1:5상반은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가?

3.2.1. 성서의 사례

아가 1:5상반이 인종적 편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검은색 피부보다 하얀색 피부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구약성서는 하얀 피부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며(야외에서 일하지 않으므로 피부가 하얗다), 밝거나 혈색이 좋은 피부는 활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본다.[25] 예를 들어, 아가 5:10의 '밝고 붉은' 모습과 예레미야애가 4:7의 '깨끗하고, 희며 붉은' 모습은 아름다운 용모로 칭송된다.

반면에 검은 피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나타난다. 욥기 30:30에서 검게 된(שחר) 피부는 육체가 약해졌음을 나타내고, 예레미야애가 4:8에서 나실인들의 얼굴이 검게 된 것(משחור)은 그들의 몸이 쇠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벌린(A. Berlin)은 구약성서에서 검은색이 가지는 모든 부정적 의미는 원래부터 '검은' 피부를 타고나서가 아니라, 역경으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변했을 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가 1:5-6에서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여 피부가 검게 된 것을 일반적인 역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성서 어디에서도 야외 노동이 하층민의 표지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가 1:5-6에서 '검은' 피부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부재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26]

나아가 아가 1:5상반의 "검은(שחר)"이라는 형용사는 긍정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전도서 11:10에는 이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추상명사 שחרות가 나타나는데, 이 명사는 '젊음'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27] 그리고 검은색은 머리카락과 관련될 때 건강, 젊음, 활력을 의미할 수 있다(레 13:31, 37; 전 11:10; 시 110:3; 아 5:11). 아가 5:11에서 여인은 남자의 머리털을 "까마귀 같이 검구나(שחר)"라며 칭송한다.[28] 그러므로 아가 1:5상반

25) A. Berlin, *Song of Songs*, 41-42.
26) Ibid.
27) Y. Zakovitch, *Das Hohelied*, 118.
28) O. Keel, *The Song of Songs*, 46-47; J. C. Exum, *Song of Songs*, 103.

에서 "검은(שחר)"은 반드시 부정적 의미나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3.2.2. 성서 외의 사례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는 성서 밖의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미술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밝은 피부로 묘사되는데, 이는 밝은 피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선호를 시사한다.[29] 진바키안(M. M. Jinbachian)은 이슬람 이전의 아랍 서정시(Odes)와 아가가 공통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후에, 초기 아랍의 서정시에서 남성들이 하얀 피부의 여성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0] 간셀(A. R. Gansell)은 히브리 성서 본문과 철기 시대 레반트 지역의 상아 조각상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하얗고 밝은 피부였음을 증명한다.[31]

하지만 무조건 하얀 피부만 선호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포프는 테오크리토스(Theocritus)[32]의 시(*Idyl* X 26-29)가 아가 1:5-6과 평행을 이룬다고 본다.[33] 이 시에서 농부 부카이오스(Becaeus)는 다음과 같이 사랑을 고백한다.

> 아름다운 봄뷔카(Bombyca)여, 사람들은 그대를 **시리아인(Syrian)**이라 부르네,
> 날씬하고 **햇볕에 그을렸다(sunburnt)** 말하네. 그러나 내게 당신은 **꿀빛**이라네.
> **'제비꽃'은 어둡고(dark), '무늬 난초'도 그러하네.**
>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들이라네.[34]

포프는 여기서 "햇볕에 그을렸다"를 비유적 표현으로 본다. 시리아인(Syrian) 봄뷔카라는 여인은 "제비꽃" 같이 어두운(dark) 피부색을 가졌다는 것이다.

---

29) A. Bloch and C. Bloch, *Th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40.

30) M. M. Jinbachian, "The Genre of Love Poetry in the Song of Songs and the PreIslamic Arabian Odes", *BT* 48 (1997), 123-127.

31) A. R. Gansell, "Iconography of Ideal Feminine Beauty Represented in the Hebrew Bible and Levantine Iron Age Ivory Scultpure", I. J. de Hulster and J. M. LeMon, eds., *Image, Text, Exegesis: Iconographic Interpretation and the Hebrew Bible*, LHBOTS 588 (London: Bloomsbury, 2014), 56.

32) 테오크리토스(BC c. 310 ~ BC 250)는 고대 그리스 시인으로서, 원숙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냈다. 김희보,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서울: 가람기획, 2002).

33) M. H. Pope, *Song of Songs*, 310-311.

34) D. Hine, *Theocritus: Idylls and Epigrams* (New York; Atheneum, 1982), 40.

베르길리우스(Vergil)[35]의 목가(*Tenth Eclogue*)에도 비슷한 묘사가 나타난다.

> 분명 아르카디아에서는, 내 열정이
> 아민타스(Amyntas)를 향하든 필리스를 향하든, 혹은 다른 누구를 향하든
> **('제비꽃'과 '히아신스'도 어두운 빛인데[dark],**
> **아민타스가 어두운 빛[dark]인 것이 무슨 상관이랴?)**,
> 나의 사랑과 나는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36]

베르길리우스는 '무늬 난초'를 '히아신스'로 대체했지만, 둘 다 어두운 색의 꽃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두 시 모두 본래 피부가 어두운 여인을 어두운 색의 꽃들에 비유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 사모스의 시인 아스클레피아데스(Asclepiades)가 지은 풍자시(*Greek epigram*)의 내용도 흥미롭다.

> 디디메(Didyme)는 이제 막 피어나는 젊음으로 나를 사로잡았으니, 아,
>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때 불 앞의 밀랍처럼 녹아내린다.
> **그녀가 검다고 한들(black),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숯도 그러하다. 하지만 숯에 불을 붙이면, 장미 봉오리처럼 붉게 빛난다.[37]

아스클레피아데스는 디디메라는 여인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녀에게 매혹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하얀 피부만 선호했던 것이 아니라, 어두운 피부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가 1:5상반 역시 어두운 피부색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히브리 성서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3. 보론: 아가와 헬레니즘 문화와의 상관관계

아가 1:5상반을 그리스 문학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가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후기 성서 히브리어로 여겨지는데, 매우 유대적인 동시에 그리스 문화를 자유롭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가에서 그리스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부분으로는 사랑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에로스로 그린 묘사(아 2:7; 8:6-7), 그

35) 베르길리우스(BC c. 70 ~ BC 19)는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한 로마의 번영 시기에 활동했다. 김희보,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36) D. Ferry, *The Eclogues of Virgil: A Transla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9), 81.

37) K. J. Gutzwiller, *Poetic Garlands: Hellenistic Epigrams in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134.

리스어 차용어인 "가마(אפריון)"(아 3:9), 포도원의 여우들(아 2:15), 애가(lament, *paraklausithyron*, 아 5:2-7)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벌린은 아가가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적 표현과 사상을 유대의 사상과 취향에 맞게 조정했다고 주장한다.[38] 그리고 하게도른(A. C. Hagedorn)은 아가 1:9에서 암말(סוסה)이 등장하는 것은 이집트의 사랑 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그리스의 연애 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임을 지적한다. 그는 아가에 나타나는 그리스 시와의 다양한 평행을 고려했을 때, 아가는 "(초기) 헬레니즘 시대에 동지중해의 국제적 지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인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형성되고 창작되었다"라고 주장한다.[39]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아가를 그리스 문학과 비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3. 소결

기존의 유대교·기독교 해석 전통은 여인의 '검은' 피부를 죄의 은유로 묘사했고, 서구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검은' 피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서에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얀 피부든 어두운 피부든 상관없이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영어의 "black"은 '흑인'을 강하게 연상시키지만, 아가 1:5상반의 어근 שחר는 그렇지 않다. 성서 히브리어에는 회색, 갈색을 가리키는 용어가 없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얼굴색, 피부색, 머리카락 색을 묘사할 때 שחר는 검정, 회색, 갈색의 모든 색을 포함한다.[40] 또한 성서적 맥락, 고고학과 DNA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근동 민족들은 서쪽과 북쪽의 밝은 피부색을 가진 민족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검거나 어두운 피부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41] 그러나 아프리카인만큼 피부가 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 "검다(שחר)"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인보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던 고대 근동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

38) A. Berlin, *Song of Songs*, 16-17.
39) A. C. Hagedorn, "What Kind of Love Is It? Egyptian, Hebrew, or Greek?", *Die Welt des Orients* 46 (2016), 92-98, 102.
40) A. Brenner, *Colour Terms in the Old Testament*, JSOT Supplement Series 21 (Sheffield: JSOT Press, 1982), 99; E. C. Hostetter, "Mistranslation in Cant 1:5", *AUSS* 34 (1996), 35.
41) N. C. Lee, *Song of Songs & Lamentations*, 33.

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두운 톤의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접속사 ו의 해석은 변명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but)"보다,[42] 자신의 당당함을 표현하는 "그리고(and)"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43]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서에서 שחר는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44] 또한 당시 사람들은 하얀 피부만 선호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피부 역시 선호했다.[45] 무엇보다 아가의 여자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남녀 관계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여성이자, 자신의 아름다움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가 8장에서 오빠들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8절)라고 말하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10절)라며 당차게 받아친다. 이를 소위 '자기 칭송(Selbstlob)' 형식이라 부른다.[46] 이런 여인이라면 자기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검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검으면서도 매력적인 여성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1:5 상반의 ו는 "그리고(an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 아가 1:6상반의 שחרחרת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

1:5상반의 ו를 "그러나(but)"로 번역하는 학자들의 중심 논거는 6절에 있다.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햇볕에 탔기 때문에, 5절에서 자신이 "검다(שחור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인은 자신이 햇볕에 탄 것에 대해 변명조로 말하고 있으므로, ו를 '그러나'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아가의 여주인공이 당당하고 진취적인 여성일지라도, '그러나(but)'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ו의 번역과 관련하여 대부분 학자는 6상반절의 "거무스름할지라도(שחרחרת)"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שחרחרת는

42) E. C. Hostetter, "Mistranslation in Cant 1:5", 36.

43) D. V. Arbel, "My Vineyard, My Very Own, Is for Myself", A. Brenner and C. R. Fontaine, eds., *The Song of Song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93; J. C. Exum, *Song of Songs*, 104

44) O. Keel, *The Song of Songs*, 46-47; Y. Zakovitch, *Das Hohelied*, 118; J. C. Exum, *Song of Songs*, 103; A. Berlin, *Song of Songs*, 41-42.

45) D. Hine, *Theocritus: Idylls and Epigrams*, 40; K. J. Gutzwiller, *Poetic Garlands: Hellenistic Epigrams in Context*, 134; D. Ferry, *The Eclogues of Virgil: A Translation*, 81.

46) Y. Zakovitch, *Das Hohelied*, 117.

단순히 여인이 햇볕에 그을린 뒤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6상반절의 שְׁחַרְחֹרֶת는 5상반절의 שְׁחוֹרָה의 어근(שְׁחַר)이 두 번 반복된 형태로써, 두 단어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47]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5상반절의 שְׁחוֹרָה와 6상반절의 שְׁחַרְחֹרֶת의 상호 연관성이 5-6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본고는 두 단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שְׁחַרְחֹרֶת의 유기적인 의미를 추론하여, 아가 1:5-6상반의 적절한 번역을 제안하려고 한다.

4.1. שְׁחַרְחֹרֶת의 사전적 의미

שְׁחַרְחֹרֶת는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이며, שְׁחוֹרָה와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사전들은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BDB*는 5절의 שְׁחוֹרָה는 "검은(black)", 6절의 שְׁחַרְחֹרֶת는 "거무스름한(blackish)"을 가리킨다고 정의한다.[48] *HALOT*은 5절의 שְׁחוֹרָה를 "거무스름하거나 햇볕에 그을린(swarthy, or alternatively sun-tanned)"으로, 6절의 שְׁחַרְחֹרֶת는 "(얼굴의) 거무스름한 색(darkish colour [of the face])"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49] *DCH*는 5절의 שְׁחוֹרָה와 6절의 שְׁחַרְחֹרֶת 모두 "피부가 어두운(dark of skin)"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50] *TDOT*는 5절의 שְׁחוֹרָה를 햇볕에 그을리거나 피부색이 "검은(black)", 6절의 שְׁחַרְחֹרֶת를 "거무스름한(blackish)"으로 정의한다.[51] 이처럼 사전들은 두 단어를 햇볕에 그을린 것과 관련시키면서, 6절의 שְׁחַרְחֹרֶת의 의미를 좀 더 약하게 보거나(*BDB*, *TDOT*: "blackish"), 두 단어에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HALOT*, *DCH*).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שְׁחַרְחֹרֶת의 유기적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52]

한편 6절의 שְׁחַרְחֹרֶת를 5절의 שְׁחוֹרָה의 단순한 '문체적 변형'으로 보는 학

47) Y. Zakovitch, *Das Hohelied*, 119;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93; M. Fishbane, *Song of Songs*, 36.
48) *BDB*, 1007.
49) *HALOT*, 1466, 1469.
50) *DCH*, 8:325, 8:327.
51) L. Ruppert, "שְׁחַר I", G. J. Botterweck, H. Ringgren, and H-J.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4, D. W. Stott, trans.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570-571.
52) 어근 שְׁחַר는 '검은'이라는 의미 외에도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다(*BDB*, 1007). 포크(M. Falk)는 이를 반영하여 6절의 שְׁחַרְחֹרֶת를 "새벽 직전의 빛처럼 검은"(black as the light before the dawn)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포크는 어근 שְׁחַר의 '검은'이라는 의미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שְׁחַר의 의미를 '검은'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포크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 Falk, *Love Lyrics From The Bible: A Translation And Literary Study of The Song of Songs*, 13, 110을 참조하라.

자들은 두 단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53] 하지만 어근이 반복되면 의미의 강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이다(동사의 반복이 강조적 의미를 지닌 것처럼). 이에 따라 미드라쉬(레 13:49에 관한 시프라)와[54] 이븐 자나흐(Ibn Janaḥ)는 이러한 어근의 반복이 '의미의 강화'라고 본다.[55] 포크(M. Falk), 헤스(R. S. Hess), 피쉬베인(M. Fishbane), 하틀리(J. E. Hartley) 등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한다.[56] 즉, 6절의 שְׁחַרְחֹרֶת는 5절의 שְׁחוֹרָה보다 '더 짙은 검은색'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יְפֵה־פִיָּה(아주 아름다운)는 יָפֶה(아름다운)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렘 46:20; 시 45:3).[57]

반면에, 6절의 שְׁחַרְחֹרֶת를 지소사(diminutive), 즉 본래의 의미보다 더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어근 שְׁחַר의 반복으로 '의미의 약화'가 일어나서, 6절의 שְׁחַרְחֹרֶת는 5절의 שְׁחוֹרָה보다 '더 옅은 검은색'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븐 에즈라(Ibn Ezra)를 비롯하여 롱맨 3세, 자코비츠(Y. Zakovitch), 주옹-무라오까, 벌린 등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58] 예를 들어, יַרְקְרָק(연두색)는 יָרָק(초록색)보다 더 약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레 13:49; 14:39).[59]

4.2. שְׁחַרְחֹרֶת의 문맥적 해석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שְׁחַרְחֹרֶת를 의미의 '강화'로 보든 '약화'로 보든,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근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5절에서 주인공 여성이 진취적이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검다(שְׁחוֹרָה)'라고 표현할 만큼 피부가 어두운 편이다. 그런데 6절에서 그녀의 피부가 'שְׁחַרְחֹרֶת'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았을 때는 그녀가 자기 피부가 '더 어두워졌다'라고 말

53) A. Brenner, *Colour Terms in the Old Testament*, 97, 121.
54) Y. Zakovitch, *Das Hohelied*, 119.
55) M. Fishbane, *Song of Songs*, 36.
56) M. Falk, *Love Lyrics From The Bible: A Translation And Literary Study of The Song of Songs*, 110;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93; M. Fishbane, *Song of Songs*, 36; J. E. Hartley, *The Semantics of Ancient Hebrew Colour Lexemes* (Louvain: Peeters Pub & Booksellers, 2000), 77; A. Berlin, *Song of Songs*, 46에서 재인용.
57) A. Berlin, *Song of Songs*, 46.
58) 트램퍼 롱맨 3세, 『아가』, 122; Y. Zakovitch, *Das Hohelied*, 119; P. 주옹, T. 무라오까,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22), 349[§ 88J.b]; A. Berlin, *Song of Songs*, 46.
59) M. Fishbane, *Song of Songs*, 36; A. Berlin, *Song of Songs*, 46.

한 것인지(의미의 강화), 아니면 '약간 거무스름할' 뿐이라고 말한 것인지(의미의 약화) 확실치 않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피부색이 '약간 거무스름할' 뿐이라고(의미의 약화)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인이 햇볕에 탄 자기 피부에 대한 방어적·변명적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바로 앞의 5절에서 그녀는 자기 피부가 검으면서 아름답다고 당당히 주장했었다(또한 아가 8:10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자기 오빠들 때문에 피부가 탔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피부가 사실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모습은 그녀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6절에서는 의미의 강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여인은 자기 오빠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서 피부가 햇볕에 탔고, 이로 인해 피부가 '더 어두워졌다'라고 푸념하는 것이다. 또한 햇볕에 타면 당연히 피부가 더 어두워진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도, שְׁחוֹרָה보다 שַׁחַרְחֹרֶת가 더 짙은 어두운 색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שַׁחַרְחֹרֶת는 '의미의 강화', 즉 שְׁחוֹרָה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3. 아가 1:5-6상반의 번역 제안

이상의 해석에 따르면, 5절에서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두운 자신의 피부색을 아름답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그러나 6절에서는 오빠들 때문에 뙤약볕 아래 포도원에서 일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자기 피부가 타서 더 어두워졌다며 푸념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신 역본인『새한글』을 함께 고려하여 번역한다면,[60] 아가 1:5-6상반의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5상반절) 나는 까무스름하면서 곱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 (5하반절) 게달의 장막들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 같지요.
> (6상반절) 내가 평소보다 더 까무스름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빤히 보지 마세요.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까요.

60) 이영미,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아가·이사야 —", 194-197.

5. 나가는 말

성서의 해석과 번역에는 늘 논쟁이 따른다. 아가 1:5상반의 번역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이슈이다. 만약 실제로 아가 1:5상반의 기존 번역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에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흑인인 구스인이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가 1:5상반의 번역과 관련하여 인종차별적 이슈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5상반절의 שחורה와 6상반절의 שחרחרת의 의미를 함께 유기적으로 고려한다면, 5-6절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Keywords)
아가 1:5-6, שחורה, שחרחרת, 검은 피부, 인종차별.
Song of Solomon 1:5-6, šĕḥôrâ, šĕḥarḥôret, black/dark skin, racial discrimination.

(투고 일자: 202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2월 27일)

<참고문헌>(References)

가렛, 두안, 하우스, 폴 R.,『아가, 예레미야애가』, 최천석 역,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10; 원출판년 2004.

김구원,『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김희보,『세계문학사 작은사전』, 서울: 가람기획, 2022.

롱맨 3세, 트램퍼,『아가』, 권대영 역, NICOT,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원출판년 2001.

보세띠, 엘레나,『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박요한 영식 역, 지혜문학총서, 서울: 성바오로, 2002.

오민수,『주해에서 설교까지 살펴보는 솔로몬의 사랑시. 아가서: 지고, 지선, 지미』, 고양: 이름북하우스, 2021.

이영미,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아가·이사야 —",「성경원문연구」56 (2025), 191-204.

젠슨, 로버트 W.,『아가』, 김회권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원출판년 2005.

주옹, P., 무라오까, T.,『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22.

헤스, 리처드 S.,『아가 주석』, 김선종 역, 베이커 지혜문헌 주석 시리즈, 서울: CLC, 2020; 원출판년 2005.

Arbel, D. V., "My Vineyard, My Very Own, Is for Myself", *The Song of Songs*, A. Brenner and C. R. Fontaine, ed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90-101.

Ausloos, H., "Between Exegetically Appropriate and Politically Correct: Towards a Responsible Interpretation of Song of Songs 1.5-7", Fischer, S. and Fernandes, G., eds., *The Song of Songs Afresh: Perspectives on a Biblical Love Poem*,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9, 3-14.

Bellis, A. O., "I Am Burnt but Beautiful: Translating Song 1:5a", *JBL* 140:1 (2021), 91-111.

Berlin, A.,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5.

Biernot, D., "'Black I am and Comely': Blackness and Whiteness as Part of Jewish Racial Discourses from Modern Times to Antiquity — And Where Is the Place of the Song of Songs in All This?", Fischer S. and Fernandes, G., eds., *The Song of Songs Afresh: Perspectives on a Biblical Love Poem*,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9, 15-43.

Bloch, A. and Bloch, C., *Th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Random House, 1995.

Brenner, A., *Colour Terms in the Old Testament*, JSOT Supplement Series 21, Sheffield: JSOT Press, 1982.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Enhanced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77. [*BDB*]

Clines, 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Sheffield Phoenix Press, 1993-2011. [*DCH*]

Exum, J. C., *Song of Song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org. ed. 2005.

Falk, M., *Love Lyrics From The Bible: A Translation And Literary Study of The Song of Songs*,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2.

Ferry, D., *The Eclogues of Virgil: A Transla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9.

Fishbane, M., *Song of Songs*,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5.

Gansell, A. R., "Iconography of Ideal Feminine Beauty Represented in the Hebrew Bible and Levantine Iron Age Ivory Scultpure", *Image, Text, Exegesis: Iconographic Interpretation and the Hebrew Bible*, I. J. de Hulster and J. M. LeMon, eds., LHBOTS 588, London: Bloomsbury, 2014, 46-70.

Gutzwiller, K. J., *Poetic Garlands: Hellenistic Epigrams in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Hagedorn, A. C., "What Kind of Love Is It? Egyptian, Hebrew, or Greek?" *Die Welt des Orients* 46 (2016), 90-106.

Hartley, J. E., *The Semantics of Ancient Hebrew Colour Lexemes*, Louvain: Peeters Pub & Booksellers, 2000.

Hine, D., *Theocritus: Idylls and Epigrams*, New York; Atheneum, 1982.

Hostetter, E. C., "Mistranslation in Cant 1:5", *AUSS* 34 (1996), 35-36.

Jinbachian, M. M., "The Genre of Love Poetry in the Song of Songs and the PreIslamic Arabian Odes", *BT* 48 (1997), 123-137.

Keel, O., *The Song of Songs*, CC, Minneapolis: Fortress, 1994.

Koehler, L.,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94–2000. [*HALOT*]

Lee, N. C., *Song of Songs & Lamentations*. Smyth & Helwys Bible Commnetary, Macon: Smyth & Helwys, 2024.

Pope, M. H., *Song of Songs*, AB,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5; org. ed. 1977.

Ruppert, L., "שׁחר I", Botterweck, G. J., Ringgren, H., and Fabry, H-J.,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4, D. W. Stott, trans.,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2004. [*TDOT*]

Sadler, Jr., R. S., “Can A Cushite Change His Skin? Cushites, “Racial Othering,” and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60:4 (2006), 386-403.

Watson, W. G. E., *Song of Songs*, HCOT, Kampen: Peeters Publishers, 2024.

Zakovitch, Y., *Das Hohelied*,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Abstract>

Translation Proposal for Song of Solomon 1:5-6a

Jeong-Heon Kim
(Hansei University)

With the advancement of Black Civil Rights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Song of Solomon 1:5a became a matter of debate. Concerning the adjective “black/dark (שְׁחוֹרָה)” in Song of Solomon 1:5a, it has been argued that translating the conjunction ו as “but” can appear to disparage Black skin colo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ong of Solomon 1:5a in fact contains any racist element and, on that basis, seeks to consider an appropriate translation of Song of Songs 1:5–6a.

For a proper translation of Song of Solomon 1:5–6a,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meaning must come first. In verse 5 the woman confidently compares her beauty to “the tents of Kedar” and “the curtains of Solomon.” In verse 6, however, she complains that because of her brothers she had to work in the vineyard and was sunburned. Within this context, scholars who argue that the conjunction ו in v. 5a should be translated as “and” generally do so from a position that emphasizes Black Civil Rights. By contrast, those who argue for translating it as “but” maintain that the passage has nothing to do with race; as verse 6 indicates, the woman is simply tanned from the sun.

In this connection, racial discrimination does not appear in the Old Testament; rather, the Cushites, who were known as Black, are portrayed as being respected. Moreover, while light skin was preferred at the time, dark skin also seems to have been valued. Therefore, no racial prejudice appears in v. 5a, and the woman’s statement that her skin is “dark” seems to mean that she was naturally born with darker skin than others. In addition, in the Song she is an enterprising woman who takes the initiative in the relationship and shows great pride in her beauty. A woman like this would not be intimidated simply because her skin is somewhat darker than that of others. Thus,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ו in 1:5a as “and.”

Furthermore, the form שְׁחַרְחֹרֶת in v. 6a is a reduplicated form of the root of שְׁחוֹרָה in v. 5a, and the two words are closely related. For this reason, their

inter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vv. 5–6. Some scholars regard the two as having similar meanings, but it is more persuasive to see the reduplicated form שְׁחַרְחֹרֶת as involving either semantic intensification or semantic weakening (a diminutive). If semantic weakening is assumed, the woman would be adopting a defensive or apologetic posture, which conflicts with the confident stance presupposed above.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here to see semantic intensification. That is, the woman laments that her brothers made her work in the vineyard, that she was sunburned, and that as a result her skin "became darker."

In light of the foregoing interpretations, Song of Solomon 1:5–6a may be translated as follows:

(5a) I am dark and beautiful, O daughters of Jerusalem,
(5b) — like the tents of Kedar, like the curtains of Solomon.
(6a) Even if I look darker than usual, do not stare at me like that.
I have only been tanned by the sun.